

# 페르시아 카페트에 표현된 디자인 구도 및 패턴특징에 관한 연구

김희선  
한양여자대학 섬유패션계열 텍스타일디자인전공 부교수

## A Study on Types of Design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Patterns Expressed in Persian Carpets

Hee-Sun Kim  
Dept. of Textile and Fashion, Hanyang women's College  
(2002. 12. 17.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types of design composition and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patterns expressed in persian carpets.

For this study, 188 works of Persian carpets were selected out in the book "Carpet & Rug" and contents in the internet sites of [www.carpetworldwide.net/](http://www.carpetworldwide.net/), [www.jafarnet.com/](http://www.jafarnet.com/).

The types of design composition expressed in Persian carpets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 1) Medallion design composition
- 2) Mihrab design composition
- 3) All over design composition
- 4) Vase design composition
- 5) Garden design composition
- 6) Moharamat design composition
- 7) Painting design composition
- 8) Tree of Life design composition
- 9) Plant Pattern design composition
- 10) Mosaic pattern design composition

Patterns expressed in Persian carpets were Mosk pattern, Tree of life pattern, Lotus pattern being related to their religion and Hunting picture patterns related to their real life. In particular, various patterns of beautiful flowers, plants, trees, animals such as birds, insects and stream, beauriful landscapes were expressed in Persian carpets.

**Key Words:** Persian carpet(페르시아 카페트), Medallion(메달리온 구도), Mihrab(메헤라브 구도), All over(올오버 구도),  
Vase(화병 의장 구도), Garden(정원 의장 구도), Moharamat(모하라매트 구도), Picture(회화 구도),  
Tree of Life(생명나무 의장구도), Plant Pattern(식물모형) 구도, mosaic pattern(모자이크 패턴)

\* 본 논문은 2002년도 1학기 한양여자대학 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카페트는 섬유로 만든 깔개류를 통칭하는데, 카펫, 러그, 매트, 용단, 양탄자 등으로도 부른다. 카페트(Carpet)란 라틴어의 “털을 빗질하다”라는 뜻을 가진 Carpita에서 나온 말이며, Rug란 스웨덴어의 “거칠게 교차된 털”이라는 뜻을 가진 Rugg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한다<sup>1)</sup>.

카페트는 사이즈(size)에 의해 매트(Mat), 러그(Rug), 롤 카페트(Roll Carpet)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매트는 주로 현관 욕실 등의 발 닦기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러그는 일반적으로 식탁 및 소파 받침, 거실 등에 부분 깔개로 사용되며, 형태에 따라 직사각형 러그(Rectangle Rug), 원형 러그(Round Rug), 타원형 러그(Oval Rug), 팔각형 러그(Octagon Rug) 등으로 구분된다. 롤 카페트(Roll Carpet)는 바닥 전체에 까는 카페트를 말한다<sup>2)</sup>.

카페트는 인류가 원시생활을 영위할 때부터 자연의 습기를 방지하고 보온을 목적으로 깔개로 사용한 동물의 가죽 등이 원류라고 할 수 있으며, 그후 아름다운 도안과 색상을 넣어 직물 또는 펠트로 만들어 졌으며, 주된 용도는 깔개였지만 국가나 부족에 따라 벽걸이 또는 텐트의 입구를 막는 앤시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카페트는 동양에서 기원하는데, 언제부터 제조되어 사용되어 왔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리스 문헌에 의하면 카페트 직조는 기원전 7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sup>3)</sup>. 즉 오늘날 남아있지는 않지만 고대 작가들의 작품에는 동양 제국 제왕의 궁전을 장식하고 있는 화려한 직물들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문구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최초의 카페트 직조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카페트는 생산지와 구성방법에 따라 수직으로 짠 장식성이 우수한 오리엔탈 카페트(Oriental Carpet)와 기계로 제작한 실용성이 좋은 서구권 카페트(European Carpet)로 분류된다. 역사성과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수직 카페트(Hand Made Carpet)인 오리엔탈 카페트는 이란, 파키스탄, 인도, 중국, 터키, 중앙아시아, 소아시아국이 주된 생산지이며, 기계적 카페트(Machine Made Carpet)인 서구권 카페트는 미국, 영국, 벨기에, 서독, 덴마크, 등이 세계 카페트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품격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져, 어패럴용 섬유상품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용 섬유상품의 중요도는 더욱 증가하였다. 따라서 인테리어용 섬유상품이 어패럴 못지 않게 디자인과 유행성이 중요해졌음을 반영한 홈 패션의 용어로 부리우고 있다.<sup>4)</sup> 대표적인 홈패션 상품인 카페트 역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여 카페트 생산국은 자국의 여건에 맞는 제품을 개발, 발전시켜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중산층 이상의 주택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세대들은 카페트를 주거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선호하고 있어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섬유업체에서도 수출전략 상품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섬유선진국의 텍스타일 교육은 텍스타일 전공자들의 직업전망을 밝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분야의 텍스타일 관련 직종을 개척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관점에서 카페트 시장은 텍스타일 전공자들이 개척하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카페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오리엔탈 카페트는 장식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순한 상품이라기보다 제

1) 이경영, 이창준, 이종택 편지(1998). 「Carpet & Rug」. 한국침장공업협동조합, p. 3.

2) 한국카페트 박물관. [www.carpetworldwide.net](http://www.carpetworldwide.net). 카페트상식.

3) Wilson, Kax. 박남성, 차임선 역(2000). 「직물의 역사」. 도서출판 예경, p. 169.

4) 김은애 외 7인 공저(2000). 「패션소재 기획과 정보」. 교문사, p. 7.

5) 김희선(2001). 섬유선진국의 텍스타일 산업을 위한 텍스타일 교육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 학회지* 3(2), p. 162.

작 기간이 2~5년이상 걸리는 고가의 품격을 갖춘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리엔탈 카페트에 표현된 디자인 구도와 색상 그리고 패턴은 국가와 부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시대의 종교, 문화 및 사건과 관련이 있어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오리엔탈 카페트의 디자인 구도와 패턴은 현대의 카페트 디자인에 많이 모방되고 응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리엔탈 카페트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면, 페르시아는 카페트 생산의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였다.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페르시아는 지리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상업의 교차로로써, 직물산업이 크게 발달되었으며 카페트 역시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다. 사산조 페르시아의 카펫 조각들이 듀라 유로포스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으며, 사파위 페르시아의 실크 카펫은 특히 유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카페트에 관한 연구의 '第1報'로 오리엔탈 카페트 중, 먼저 페르시아 카페트에 표현된 디자인 구도 유형과 패턴 특징을 분석 제시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전공자들의 카페트 디자인을 위한 자료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오리엔탈 카페트에 표현된 패턴과 색상은 어느 정도 제작자의 개인적 예술성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部族으로부터 口承되어온 전통적 요소가 디자인에 활용되고 있다. 카페트 디자인에 표현된 패턴은 어느 部族과 관련된 기원과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으나 실제로 그것들에 대해 기록된 문헌자료가 없어 상징적 의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불가능하다<sup>6)</sup>.

그러나 페르시아 카페트는 지역과 부족에 상관 없이 어떤 공통된 디자인 구도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Carpet & Rug에 제시된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카페트 생산지역에서 제작한 카페트 53점과 한국카페트 박물관<sup>7)</sup>에 제시된 페르시아 카페트 47점, www.jafarnet.com<sup>8)</sup>에서 제시한 페르시아 카페트 88점 등 모두 188점을 분석하여 페르시아 카페트에 표현된 디자인 구도 유형을 체계화하였으며, 각 유형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 특징을 분석 제시하였다.

## II. 페르시아 카페트의 분류

### 1. 직조 방법에 따른 분류

페르시아 카페트는 다른 오리엔탈 카페트와 마찬가지로 직조 방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킬림(Killim)형과 파일(Pile)직조형이다.

#### (1) 킬림(Killim)형 카페트

킬림(Killim)형은 태피스트리 직조법을 사용하여 평평하게 제작된 카페트이다. 태피스트리 특유의 슬릿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킬림 카페트의 안쪽과 겉쪽은 같은 모습이다. 킬림 디자인에서는 태피스트리기법으로 인해 기하학적 디자인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sup>10)</sup>.

#### (2) 파일(Pile)직조형 카페트

파일 직조형은 경사 2~4올을 1조로하여 그 둘레에 매듭을 짓고 당기고 조여 파일을 심은 카페트이다<sup>11)</sup>.

매듭기법(Knotting technique)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중 주종을 이루고 있는 두 종류는 세나(Sehna) 매듭과 기오르데스(Ghiordes) 매듭 방법이다. 세나매듭은 페르시안 매듭이라고 부르며, 기오르데스 매듭은 터키식 매듭이라고 부른다.

6) Wilson, Kax.(2000). 박남성, 차임선 공역. 전계서, p. 146, pp. 169~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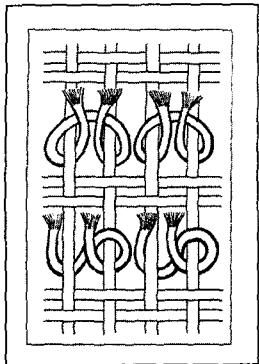
7) 이경영 외 2인(1998). Carpet & Rug, 전계서, p. 441~432.

8) 한국카페트 박물관, www.carpetworldwide.net/, 갤러리 이란관, 세계의 희귀 카페트관.

9) 페르시아 카페트(이란카페트)박물관, www.jafarnet.com/products/carpet-gallery/

10) Wilson Kax(2000). 박남성, 차임선역, 전계서, p. 170.

11) 이경영외 2인(1998). 전계서, p. 424.



〈그림 1〉기오르데스 터키식 매듭(위), 세나 페르시안 매듭(아래)

즉 파일조직은 각 줄(raws) 사이에 터키식 기오르데스 매듭방법이나 페르시아식 세나 매듭을 이용하여 파일을 삽입하여 직조한다. 파일조직은 매우 복잡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한다.<sup>12)</sup> 사용된 매듭의 형태는 카페트가 어디서 제조되었는지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란 및 중동의 지방들은 양쪽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이다. 매듭방법에 대한 아이러니한 예를 들면 세나는 카페트를 생산하는 마을의 이름인데 실제로 세나 지방에서는 기오르데스 즉 터키식 매듭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한다<sup>13)</sup>.

## 2. 지역 또는 부족에 따른 분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은 일찍이 카페트의 제작지로 유명한 곳이 많다. 제작 지역 혹은 부족에 따라 카페트의 색상 및 패턴 등에 독특한 특징을 형성하게 됨으로, 종종 카페트는 지역 혹은 부족의 이름이 카페트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페르시아 인이 직조하는 문양의 형태와 종류는 전 페르시아에서 공통되고 있지만 부족 간에서 다른 고유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 또 家단위에서 더 독자적인 패턴이나 심볼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타탄 체크가 각 家門에 따라 다른 것과 흡사하다. 색의 조합도 부족에 따라 상위하다<sup>14)</sup>.

이란의 카페트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은 아프살(Afshar), 바크티아리(Bakhtiari), 비잘(Bijar), 이스파한(Esfahan), 헤리즈(Heriz), 카샨(Kashan), 케르만(Kerman), 마샤드(Mashad), 나인(Nain), 카슈가이(Qashqa'i), 큐ム(Qum), 사루크(Sarouk), 세네(Senneh), 타브리즈(Tabriz), 마라이예르(Malayer), 드록시(Doroksh), 카라바그(Karabagh), 헤레케(Hereke) 등이다.

따라서 페르시아 카페트를 분류할 때, 지역에 따라 이스파한 카페트, 아프살 카페트, 타브리즈 카페트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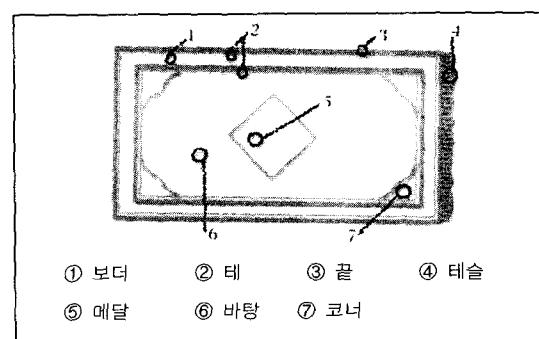
## III. 페르시아 카페트에 표현된 디자인 구도의 유형 및 패턴특징

188점의 페르시아 카페트에 표현된 디자인 구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10가지의 디자인 구도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 (1) 메달리온(Medallion) 구도

페르시아 카페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구도였다. 일반적으로 메달리온 구도는 〈그림 2〉와 같이 메달, 바탕, 코너, 테, 보더, 끝, 태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메달리온 구도의 중심인 메달은 종교적 의미를



〈그림 2〉 기본 메달리온 구도의 각부 명칭<sup>15)</sup>

12) Wilson Kax(2000). 박남성, 차임선. 전계서. p. 170

13) 이경영 외 2인(1998). 전계서. p.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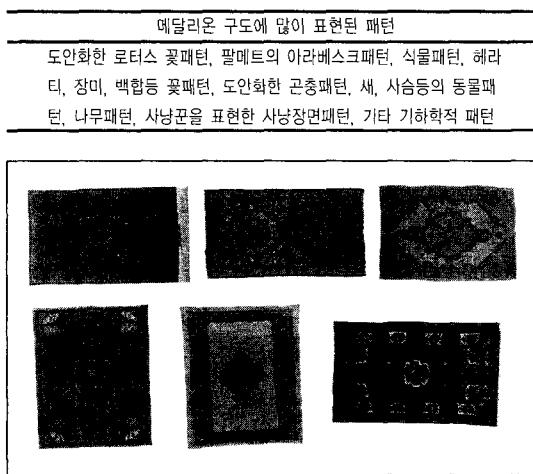
14) 전계서. p. 412.

15) 한국카페트 박물관. [www.carpetworldwide.net/](http://www.carpetworldwide.net/). 수직카페트 이론편.

지니고 있다. 주로 추상무늬인 메달리온의 중심 점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모든 것을 간파하는 신의 눈을 상징한다. 둘째, 중심점은 로터스 꽃으로, 로터스는 진흙속에서 자라지만 천국을 향해 화려한 꽃을 피운다는 점에서 성스러움을 상징한다. 셋째, 기본형의 변형인 눈물 방울 메달리온은 가운데 원의 중심이 길게 연장되어, 그 상하에 타원형이 침가되어 있다. 이는 신의 눈물을 상징한다. 이 우아한 문양은 코란의 책 표지 장식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sup>16)</sup>

분석 결과 메달리온 구도의 카페트는 다양하게 변형되어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달의 형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려한 로터스 꽃을 다양한 추상적 무늬로 형상화한 것 뿐만 아니라 네모, 마름모, 타원형, 다각형 등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었다. 중심의 메달의 갯수가 2~3개 이상인 것도 있었다. 중앙의 메달과 아름다운 아라베스크 패턴의 곡선을 어울린 구도, 메달과 나무, 동물, 사냥꾼 패턴을 어울린 구도, 메달과 올오버된 꽃패턴을 어울린 구도, 메달과 기하학적 문양을 어울린 구도 등 다양했으며, 코너가 없는 구도도 많이 있었다. 보더와 테에는 화려한 식물패턴, 장미패턴, 장미와 백합, 팔메트 패턴, 동물

〈표1〉 메달리온구도에 많이 표현된 패턴



〈사진1〉 메달리온 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

16) 이경영 외 2인(1998), 전계서, pp. 438~440.  
17) 전계서, pp. 434~436.

패턴 등이 많이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은 메달리온 구도에 많이 표현된 패턴을 제시한 것이며, 〈사진1〉는 메달리온 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 (2) 메헤라브(Mihrab) 구도

메헤라브 구도는 모스크(Mosk, 이슬람사원)의 건물을 본 딴 아치형의 구도이다.

모스크의 천정에서 늘어져있는 램프를 모방하여 카페트 위쪽에 렌턴이 긴사슬로 매달려 있으며, 양옆으로 서양의 가스등과 같은 화려한 기둥이 러그의 아래쪽으로부터 서있으며, 가운데 아래쪽에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화병문양이 놓여 있다, 나머지 여백은 우아한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곡선미의 극치를 이룬다. 메헤라브 구도는 기도용 러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도이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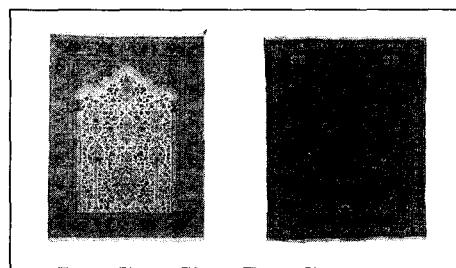
메헤라브 구도의 카페트는 종종 화병구도와 조화되어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2〉는 메헤라브 구도에 많이 표현된 패턴을 제시한 것이며, 〈사진2〉은 메헤라브 구도의 카페트의 예이다.

〈표2〉 메헤라브 구도에 많이 표현된 패턴

---

메헤라브 구도에 많이 표현된 패턴
모스크형 아치 패턴, 꽃이 화려한 화병패턴, 꽃으로 장식된 기스 등패턴, 꽃이화려한 상드리에 패턴, 아라베스크패턴, 다양한 꽃패턴, 식물패턴, 기하학적문양 등

---



〈사진2〉 메헤라브 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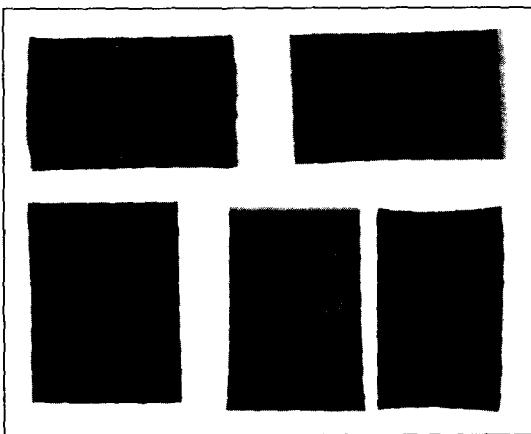
## (3) 올오버(All over) 구도

분석 결과 중앙에 메달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코너도 없었으며, 테와 보더는 있었다.

바탕에 같은 문양이 반복되는 형태이다. 간혹 코너 있어, 코너와 바탕의 문양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해라티패턴, 보테패턴, 골.화랑기패턴이 바탕에 반복된 문양이 가장 많이 보였으며, 위의 문양을 마름모꼴 혹은 원형으로 감싼 패턴 또는 화환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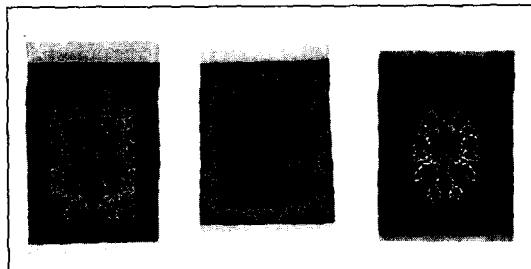
〈사진3〉는 올오버 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의 예이다.



〈사진3〉 올오버 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

#### (4) 화병(Vase)의장 구도

화병 의장 구도는 전통적으로 꽃으로 가득한 그리스의 우문의 모습을 한 화려한 화병이 카펫트의 아래쪽에 놓여있고<sup>18)</sup> 위쪽에는 또 다른, 꽃을 가득 담은 화병이 샹드리에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중앙에 걸려있거나 위쪽 양옆으로 또 다른 화병이 벽에 붙어 있는 구도가 많이 보인다. 또한 종종 화병 패턴은 메헤라브 구도와 조화되어 표현되기도 하였다.



〈사진4〉 화병의장 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

화병의장 구도에 많이 등장하는 패턴은 꽃병, 화려한 꽃, 다양한 새, 페이즐 패턴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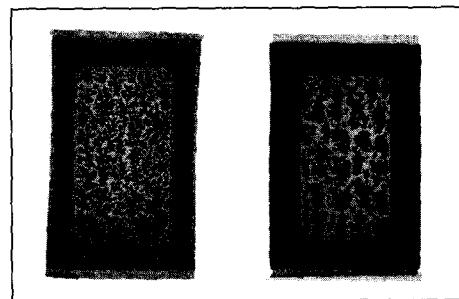
〈사진4〉는 화병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의 예이다.

#### (5) 정원(Garden)의장 구도

이란은 물이 귀하고 국토가 말라있어 아름다운 꽃과 새가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정원을 갖는 것은 페르시아 사람들의 최고의 바램이었다. 따라서 페르시아 카페트에 자주 표현된 구도 중 하나는 정원의장 구도였다.

중심에 메달과 코너는 없고, 장방형의 바탕에 각종의 다양한 꽃, 풀, 나무, 동물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실개천을 만들고 개천에 작은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다. 보더와 테에는 또 다른 꽃과 새문양 등을 표현하여 작은 돌담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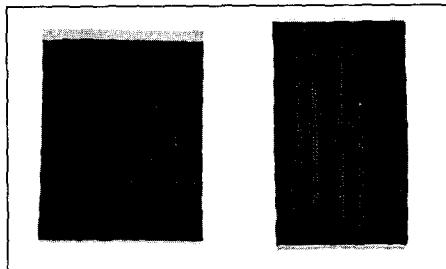
〈사진5〉은 정원의장 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의 예이다.



〈사진5〉 정원의장 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

#### (6) 모하라매트 (Moharamat) 구도

메달과 코너는 없고 바탕이 스트라이프 패턴으



〈사진6〉 모하라매트 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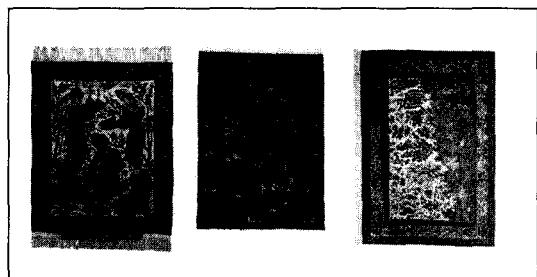
18) 전계서. p. 438.

로 채워져 있으며 스트라이프 패턴 안에 우아한 작은 보테, 페이즐 패턴, 작은 꽃 문양 등이 반복 표현된 구도이다. <사진6>은 모하라매트 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의 예이다.

#### (7) 회화(Painting) 구도

수렵도, 풍경, 페르시아 전통 시나 문학에 나오는 이야기의 장면 등을 회화 기법으로 자유롭고 섬세하게 묘사한 카펫 구도이다.

주로 많이 표현된 패턴은 수렵도, 전원을 배경으로 한 동물그림, 풍경그림, 시나 문학에 나오는 장면 등 이었다. <사진7>은 회화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의 예이다.



<사진7> 회화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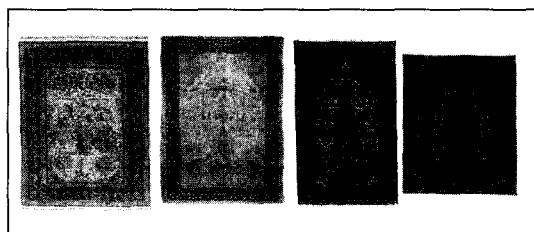
#### (8) 생명나무(Tree of Life) 의장구도

생명나무는 이슬람 신앙은 물론 그리스도교 신앙 및 많은 종교에 공동으로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특히 물이 부족한 토지에서 살고 있는 이슬람교도에 있어서 생명나무는 “낙원의 상징”이었다. 코란은 신앙이 독실한 자에게 푸른 잎이 무성한 정원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다. 생명나무는 꽂꽃하게 서 대지에 뿌리를 누리고 천상을 향해 뻗고 있다. 이 패턴은 부족의 러그에도 도시의 러그에도 공통되게 표현된다. 생명나무 구도에는 여러 패턴이 그려지는데 가장 단순한 형은 몸통을 나타내는 한그루의 꽂꽃한 수직선이 그어지고 그것에 일련의 짧은 수평선이 첨가되고 있다. 도시의 러그에 표현된 “생명나무” 구도는 고도로 세련되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생명나무는 한 그루만 심

어져 있기도 하지만 나란히 가지가 연결된 두 그루의 생명나무 패턴도 보인다. 이것은 결혼을 축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스화한, 큼, 터브리즈의 생명나무 구도의 패턴은 유명하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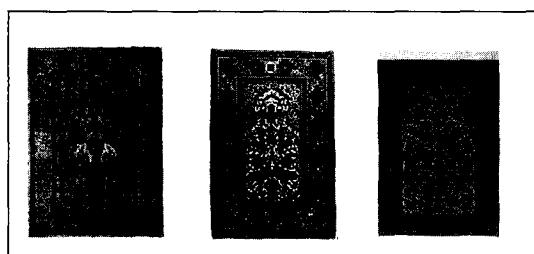
분석 결과 생명나무 구도에 나타난 생명나무 패턴은 크게 사실적 표현의 생명나무와, 도안화한 생명나무 패턴으로 나눌 수 있었다. 생명나무는 한 그루 또는 여러 그루를 조화하여 표현하고 있었으며, 아름다운 새들과 동물 패턴, 흐르는 시냇물과 꽃 패턴 그리고 사람 패턴과 어우러져 있었다. <사진8>은 생명나무 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의 예이다.

#### (9) 식물모형(Plant Pattern) 구도



<사진8> 생명나무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

고대 페르시아 카페트에서도 많이 표현된 형식의 구도이다. 사-아브스 식물(Shah Abbas Plant) 패턴이 많이 표현되어 있었다. 카페트의 바탕에 유연한 곡선으로 도안화한 식물이 균형 있게 표현되어 있었다. <사진9>는 식물모형 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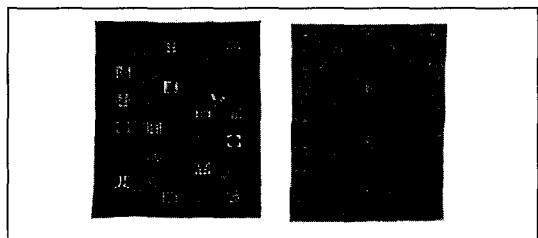


<사진9> 식물모형 구도의 페르시아카페트

#### (10) 모자이크 패턴(mosaic pattern) 구도

19) 전계서. p. 442.

창틀 모양의 사각형 안에 각기 다른 패턴을 넣어 모자이크한 구도의 카페트이다. 현대적인 페르시아 카페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도였다. 창틀모양의 사각형 안에 표현된 문양은 도안화된 나무, 꽃, 식물, 성전(mosk), 새, 동물 패턴 등이었다. <사진10>은 모자이크 패턴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의 예이다.



<사진10> 모자이크 패턴구도의 페르시아 카페트

#### IV. 결론

페르시아 카페트에 표현된 패턴은 부족이나 지역에 따라 특징과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보다는 口傳되어 온 것이 많이 정확한 해석이 힘들다. 하지만 페르시아 카페트는 지역과 부족에 상관없이 어떤 공통된 디자인 구도를 보이고 있음에 착안하여 188점의 페르시아 카페트 사진을 분석하여 페르시아 카페트에 표현된 디자인 구도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디자인 구도에 자주 표현되는 패턴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디자인 구도는 메달리온(Medallion) 구도, 메헤라브(Mihrab) 구도, 올오버(All over) 구도, 화병(Vase)의장 구도, 정원(Garden)의장 구도, 모하라마트(Moharamat) 구도, 회화(Picture) 구도, 생명나무(Tree of Life) 의장구도, 식물모형(Plant Pattern) 구도, 모자이크 패턴(mosaic pattern) 구도 등 10가지로 유형화 시킬 수 있었다.

가장 많이 보이는 디자인 구도는 메달리온 구도였다.

각각의 디자인 구도에는 자주 표현되는 패턴들이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많이 표현된 패턴은 모스크 사원, 생명나무, 로터스 등 그들의 종교와 관련된 패턴과 그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수렵도 패턴 등이었다.

특히 해라티 패턴, 보테패턴, 골화랑기패턴, 장미, 백합 등을 포함하는 아름다운 꽃 패턴, 식물패턴, 나무패턴, 새를 포함한 동물패턴, 곤충패턴, 시냇물 패턴, 아름다운 풍경패턴 등을 도안화하거나 또는 실제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물이 귀하고 비옥하지 못한 자연환경을 가진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관련된 패턴을 카페트에 표현하여 그들의 집에 소유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동경과 소유 욕구를 카페트를 통해 충족시키려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권오정(1995). 텍스타일디자인의 이론과 실제. 서울: 미진사.
- 김은애 외 7인 공저(2000), 패션소재 기획과 정보. 서울: 교문사.
- 김희선(2001). 섬유선진국의 텍스타일 산업을 위한 텍스타일 교육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 디자인 학회지 3(2).
- 민길자(1998), 세계의 직물:한림원
- Wilson, Kax. 박남성, 차임선 옮김(2000). 직물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예경.
- 이경영, 이창준, 이종택 편저(1998). 「Carpet & Rug」. 한국침장공업협동조합.
- Harris, Jennifer(1993), Textiles 5000 Years, Harry n Abrams.
- <인터넷 사이트>
  1. 페르시아 카페트(이란카페트)박물관, [www.jafarnet.com/products/carpet-gallery/](http://www.jafarnet.com/products/carpet-gallery/)
  2. 한국카페트 박물관, [www.carpetworldwide.net/](http://www.carpetworldwide.net/)